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2주일(예수 성심 성월)
제30권 30호(다해) 2010-6-20

[묵상]



잃었던 아들을 되찾음
<이남규(1931-1993년), 파스텔, 유가족소장, 서울>

지상에서 이루신 일들을
중간평가 해보고 싶으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살아난 옛 예언자.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입 다물라고 하시니
이 대답도 틀렸나봅니다.
중간평가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왜 틀렸을까,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그리스도라는 감각에 찬 고백 안에
담기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십니다.
고난과 죽음,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는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영터리 그리스도 선포를 금하십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허락하실까, 입 다물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 자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걸까!
최종평가의 결과도 실패일까? - 櫃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오전 오후	2:00 10: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오후	 6:00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1:00 2:30 9:00 1:00 2: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산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박대수 나자로, 천서인 레지나, 소수연 안나, 이정석
	(생) 이상수 다니엘, 김하나, 유종민 미카엘, 송민영 보나, 권승호 안토니오, 김민석 시몬, 김지향 엘레나, 문채원 클로틸다, 이범주 다니엘, 곽수민 히메리오
주 일 낮 미사	(연) 이금순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김종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엄은섭 도로테오, 이복내 말파,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김태순 테레사, 박준구 요한, 윤기상 아오스딩 & 정일영 모니카, 주광자 안나
	(생) 고규재 체칠리아, 이진행 힐라리오, 이준영 마르코 & 제이미 크리스티나, 최기남 야고보, 조운영 아우구스틴 가정, 이종원 베드로 & 아녜스 가정, 최현찬 안드레아 & 도로테아 가정 남가주 제31차 영어 남성 꾸르실료 수강자와 봉사자(유 종민 미카엘, 김철민 요한, 이명필 라파엘), 이덕철 루카 & 순자 비비안나 가정, 이강환 마르띠노 사제 & 본당의 모든 아버지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Zechariah) 12,10-11;13,1

화답송 ○하느님, 내 하느님,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전례성가 82, 연중 제12주일 다해>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없이 마르고
페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림나이다.○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옵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손 치올리리이다.
비계인듯 기쁨인듯 당신으로 내 흐뭇하고,
내 입술 흥겨웁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내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아래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 내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몸을 바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3,26-29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Luke) 9,18-24

영성채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I Will Celebrate	313
봉헌	261	269
성체	하느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282
파견	357	218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
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
판을 받아야 한다."(마태 5,21-22)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계명이 지닌 긍정적인 요구들을 더욱 밝게 드러내신다. 이러
한 요구들은 구약 안에 이미 나타나 있다. 구약은 외국인, 과부,
고아, 병자, 그리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 태중의 아기들처럼 생
명이 약하고 위협받고 있을 때 보호하고 변호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출애 21,22; 22,20-26 참조) 이러한 긍정적 요
구들은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힘과 절박성을 얻게 되며, 그 모
든 폭과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 이 요구들이 지닌 범위는 형제
(같은 민족에 속한 피를 나눈 형제이건, 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이건)의 생명을 돌보는 것에서 비롯하여, 외국인
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까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까지 이른다.

곤경에 처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그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이방인은 더 이상 이
방인이 아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 점을 잘 보여
준다.(루카 10,25-37 참조)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착한 일
을 하고"(루카 6,27.33.35 참조),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대가
를 바라지 않고 즉시 도움을 주어야 할(루카 6,34-35 참조) 사
람에게는 원수까지도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마태 5,38-48;
루카 6,27-35 참조) 이 사랑의 극치는 바로 원수를 위해서 기
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의 사
랑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
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
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전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마태 5,44-45; 루카 6,28.35 참조)

따라서, 인간 생명을 보호하라는 하느님 계명의 가장 심오
한 요소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과
사랑을 보이라는 요구이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라는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
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
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로마 13,9-10) (◆계속)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연중 제12주일인 오늘은 한국에선 남북통일 기원미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남북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지 6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꽤 많은 시간이지만, 우리 민족의 마음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가 되길 바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명절 때면 가끔 이산가족 상봉을 보곤 합니다. 그때 남과 북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코끝이 찡해 옵니다. 이념적, 정치적 대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민족이라는 핏줄이라는 사실에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남북의 화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분열을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는 남북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어,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고, 서로 좋은 말로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에페 4,29)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악의 찬 상호 비방입니다. 그리고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남북 화해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승께서 하셨던 위대한 사랑을 북쪽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칠 줄 모르게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일하는 데 어려움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픔들이 아직도 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서로의 아픔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독서에서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북도 서로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화해의 물꼬를 터야 하겠습니다. 이 용서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어투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화해의 손짓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통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 용서 그리고 사랑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 낼수 있는 우리 사명입니다.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

서울 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Happy Father's Day! ♥

오늘은 아버지날(Father's Day)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본당 교우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 마다않고 늘 수고하시
는 모든 아버지들과 본당 신부님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 한국 외방선교회 총장 신부님 본당 방문, 미사 집전

- 파푸아뉴기니를 포함, 세계곳곳에 선교사를 파견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한국 외방선교회 김명동 총장 신부님께서 본당을 방문,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선교사업에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는 시간입니다.
- 일시 : 오늘 주일 특전미사(19일 토)~20일 아침/낮 미사
- 문의 : 서병교 라파엘 ☎(310)227-1230

◆ 예비자 환영식

예비자 환영식이 오늘 주일 낮미사 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첫교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전신자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 환영식 : 오늘 주일(20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6월24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새 푸르실리스타 환영식(남가주 제31차 영어 남성푸르실료)

- 일시 : 오늘 주일(20일) 오후 7시 강당
- 참가자 : 수강생 1명 유종민 미카엘(주일학교 교사), 봉사자 2명 : 이명렬 라파엘, 김철민 요한
- 선배 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본당 올트레아 간사 천남숙 리더아 ☎(310)408-3174

◆ 배론 청년의 밤

- 임기끝과 시작을 맞이하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 일시 : 6월26(토) 오후 8시 강당
- 주제 : 'Hawaiian'(하와이 스타일 의상을 입고 오세요!)

- 푸짐한 상품, 저녁식사와 각태일 제공
- 새 회원 모집 : 많이 참여해주세요.
- 문의 : 신임회장 이상용 엘리야 ☎(310)650-6057
부회장 강호우 안토니오 ☎(310)951-8509

◆ 유아세례 신청

- 일시 : 6월26일(토) 오후 6시
- 세례신청서 : 사무실에 제출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당일 5시45분까지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 마가렛 매리 본당 패트릭 탐슨(몬시놀) 주임 신부님 은퇴식

- 백삼위 한인성당이 소속된 성 마가렛 매리 본당의 주임신부님 이신 패트릭 탐슨 몬시놀께서 은퇴하십니다. 그 퇴임 파티에 우리 본당 교우들도 초대했습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일시 : 6월27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St. Margaret Mary Church
25511 Eshelman Av. Lomita, CA 90717
- 문의 : ☎(310)326-3364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비를 보내오고 계시는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적잖은 도움을 주는 이들 업소를 교우분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안나회 성전헌금 봉헌

- 안나회(회장 이영희 카타리나)에서 성전헌금으로 \$1,000을 봉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정된 흡연구역외에서는 금연합시다.

- 본당 건물 북쪽 양 코너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20일(주일) : P.V. 3반(가정식백반 \$3)
- 6월27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광자	김병학	김우용	김 옥	김재연
	김재영	김정순	김정웅	김진숙	나경흠	남성철
	문충한	민소예	박선형	박선희	박영룡	박진수
	배기엽	송기철	윤석구	윤희동	이남현	이일길
	이효세	임연조	정규숙	정상문	정정현	정훈모
	조경림	최이원	한창주			
	합계 : \$2,945					
미사헌금 : \$2,782.85						
성전헌금	구자운	김광자	김병학	김우용	김 옥	나경흠
	남성철	문충한	민소예	박선형	박선희	박영룡
	박진수	배기엽	이남현	이효세	정규숙	정상문
	정정현	정훈모	조경림	최이원	한창주	김성일
	합계 : \$1,865					

공지사항

☼ 새로 나온 신자 환영합니다. ☼

- ♡ 이재준 요한 & 조혜란 엘리사벳 부부, 장녀 이성경 마리아 (P.V.2반)
♡ 김지영 노벨도 & 정영옥 이레네 부부 (다우니 지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종업식

- 일시 : 오늘 주일(20일), 선데이스쿨 - 오전 9시30분 학생 미사 중에, 한국학교 - 오후 1시 성전(학예발표회가 있으니 학부모님은 물론 모든 교우분들의 참관을 환영합니다.)
- 여름방학 시작 : 6월27일(주일)부터
- 개학 : 9월12일(주일)

◆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 있습니다.

여름방학중에도 주일학생미사(오전 9시30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학중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집시다.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장소 :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 : 단체 텐트
- 준비물 : 슬리퍼팩, 세면도구, 모자, 자켓, 여벌옷, 선크림, Insect Repellent, 물통, 주일학교티셔츠, 수영복, 주일헌금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참가비 : \$195 * 접수 : 주일학교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 Riverside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최석현 마르코 신부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
- 참가비 : \$160 * 신청 : 이유나 ☎(562)319-3456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 남미 에콰도르 해외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5일~13일 * 장소 : 에콰도르 팔마본당과 공소
- 모집 : 의료진, 일반봉사자, 대학생
- 참가비 : \$1,500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해외봉사회
- 문의 : 김 안나 ☎(213)272-7404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6월 사목상임위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상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이아가다 328-0847 6/19(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이경용 야고보 530-7702 6/19(토) 오후 7시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6/17(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순희 모니카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12(토)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6/15(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김화수 올리아나 213-248-4576 6/18(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6/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남현 막시모 793-7733 6/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황지영 안젤라 895-8624 6/18(금) 오후 7시 성당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재연 다두 634-2283 6/5(토) 오후 7시 강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6/12(화)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이희영 안나 544-8245 6/18(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2(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도원 다니엘 892-1213 6/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녜스 541-0767 6/8(화) 오전 10시30분

칼럼! 교리

성체를 영할 때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성체를 영할때마다 얇은 것, 두꺼운 것, 무늬가 있는 것 등 다양한데 왜 그런가요?

우리가 미사 중에 영하는 성체는 밀가루를 얇게 반죽하여 구워 낸 것입니다. 가르멜 수녀원에서 하얀 밀떡을 구워 내는데, 신자용과 사제용이 있습니다. 구워 낼 때 반죽에 따라 조금 얇을 때도 있고 두꺼울 때도 있습니다.

신자용은 작은 동그라미 모양이지만 사제용은 큰 모양입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 수가 준비한 성체보다 많을 경우 사제용을 쪼개어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그때는 성체 모양이 달라지겠지요.

지금은 하얀 밀떡을 성체로 받아 모시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푸짐한 식사였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에 모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말씀의 전례) 최후만찬을 기념했습니다.(성찬의 전례) 이 때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빵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상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영성체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미사중에 고개를 숙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각각 고개 숙여 인사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미사중에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해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머리를 숙이거나 상반신을 굽혀 절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손윗사람이나 선생님 혹은 장관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표시하는 것이죠. 특히 신앙인에게는 하느님께대한 경외, 참회,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전례 안에서는 동작 하나하나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예절이며 깊은 만남의 표현입니다.



미사중에 신자들이 고개를 숙여 하는 절은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럼, 미사를 드리면서 몇 번 절을 해야 하나요?

전례적으로 4번 하면 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바치는 중에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고백하면서 고개를 숙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의 육화(肉化) 신비를 기억하고 흠송합니다.

다음으로, 사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밀떡과 포도주를 축성한 후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높이 들어 우러르고 내릴 때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인 ‘성혈’을 높이 들어 우러르고 내릴 때에도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하는데, 이는 구원의 신비를 흠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체송을 함께 바치고, 성체를 받아모시기 위해 사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때 성체를 영하기에 앞서 미리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받아 모시게 됩니다.(참고로 사제 바로 앞에서 절을 하는 것보다는 앞사람 뒤에서 미리 절을 하는 것이 원활한 전례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사 전례 안에서는 4번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면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2009) 발행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9’에 따르면, 2009년 12월31일 기준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수는 512만 92명으로 인구대비 10.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본당 수는 1,571개이고 공소는 1,017개입니다. 성직자 수는 총 4,404명으로 추기경 1명을 포함한 주교가 30명, 한국인 신부가 4,193명, 외국인 신부가 1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도자 수는 총 11,628명으로 남자가 1,555명, 여자가 10,07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료 : 서울 대교구 정보마당